

빛고을 챔필 응원 소리, 달구벌까지 울려퍼졌다

주말 광주 KS 응원 한마음

대구 원정 못간 팬들 챔필 가득채워 김태군 만루홈런에 떠나갈듯 환호 타 지역에서 광주로 응원전 오기도

2024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3·4차전이 지난 25·26일 대구에서 열렸지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가 후끈 달아올랐다.

KIA가 원정에 함께하지 못하는 타이거즈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고, 팬들의 합성을 모아 선수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챔피언스 필드를 개방해 응원전을 펼쳤기 때문이다.

27일 KIA 등에 따르면 25·26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응원한 KIA팬들은 각 1만 1616명, 1만 1467명에 달했다. 매일 1만명이 넘는 지역 팬들이 챔피언스 필드에서 대구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치는 KIA를 위한 열띤 응원전을 펼친 것이다.

전날 오후 광주시 북구 챔피언스 필드에는 흥경을 방불케 하는 팬들의 응원소리가 울려퍼졌다.

팬들은 KIA가 원정경기를 벌이는 대구까지 승리의 염원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절히 응원했다.

응원전에 나선 팬들은 선수들의 플레이가 펼쳐질 때마다 환호와 탄성을 토해내며 전광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날 경기장은 챔피언석, 중앙테이블석, 타이거즈가죽석, 서프라이즈석, 1,3루 일반석에 한해 개방됐지만, 응원전에 나선 팬들로 순식간에 가득 찼다.

지난 25일 대구원정 3차전에서 1패를 했지만, 3번째 승리를 바라는 팬들의 응원소리는 챔피언스 필드 흥경을 방불케 했다. 불의의 일격을 당한 KIA가 기세를 회복하길 고대했다.

KIA 치어리더와 열띤 응원전도 시민들의 응원에 한 몫했다. 선수가 타석에 나올 때마다 퍼지는 선수별 응원가는 오히려 현장감을 더 북돋웠다.

응원전에 나선 팬들은 각자 응원하는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응원도구를 챙겨 더욱 큰 목소리로 응원가를 불렀다.

김태군이 3회 초 만루홈런을 때리자 챔피언스 필드는 떠나갈듯한 포효와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승리의 기운을 느낀 KIA팬들은 서로 일사 안고 기뻐했다. 팬들은 연이어 '김태군'을 호명하고 '최강 기아 승리하리라' 응원가를 부르며 승리의 기운을 북돋았다.

이날 현장에서 응원에 나선 심선미(여·57)씨는 "비록 대구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경기장에서 나와 모여 응원하니 경기를 직관하고 있는 느낌"이라면서 "우리의 응원이 대구에서 경기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부 팬들은 지난 25일 3차전 패배를 오히려 기뻐하기도 했다.

3·4차전을 모두 승리해버리면 한국시리즈가 대구에서 끝나 우승의 현장을 함께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다.

5차전 예매를 했다는 한 시민은 "3·4차전 중 한 경기는 저서 광주에서 12번째 한국시리즈 우승 컵을 들었으면 했다"면서 "오늘 응원 열심히 해서 3번째 승리 후 월요일은 광주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웃어보였다.

타지역에서까지 광주를 찾아 응원에 나선 팬도 있었다.



KIA타이거즈 팬들이 지난 25일 광주 챔피언스 필드에서 한국시리즈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거주하는 KIA팬 박진하(여·30)씨는 "2차전 경기를 보러 챔피언스 필드에서 직관을 했는데 다 같이 응원하는 매력에 빠졌

다"며 "대구까지는 못갔지만 KIA팬들과 다같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챔피언스 필드를 찾았다. KIA가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에 소리치느라 이제 목소

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대민 기자 kdi@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만루홈런=우승' 한국시리즈 전통 이을까

KIA 김태군 생애 첫 만루포 4차전 9-2 대승 이끌어

한국시리즈에서 프로 17년 차 첫 만루포를 장식한 KIA 김태군이 기본 좋은 우승 징크스를 이을까?

KIA 타이거즈의 '안방마님' 김태군은 지난 2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3-0으로 앞선 3회 2사 만루에서 담장을 넘겼다.

삼성 선발 원태인이 2번 타자로 나선 김선빈의 끈질긴 승부에 흔들리면서 78구를 끝으로 3회 1사 만루에서 물러났고, 송은범이 삼성 두 번째 투수로 나섰다. 변우혁이 포수 파울플라이 아웃으로 물러났지만 김태군이 송은범의 2구째 135km 슬라이더를 좌측 담장 밖으로 날리면서 만루포를 장식했다.

프로 처음 만루에서 손맛을 본 김태군은 역대 KBO 포스트 시즌 20번째 만루홈런 주인공이 됐다. 한국시리즈로 좁히면 5번째로 나오지 않은 귀

한 그랜드슬램이다. 김태군에 앞서 한국시리즈 만루 사나이로 된 선수는 1982년 김유동(OB), 2001년 김동주(두산), 2012년 최형우(삼성), 2017년 이범호(KIA)다.

5명 중 최근 만루홈런 기록을 작성한 3명은 2024 한국시리즈에서 감독과 최고참, 안방마님으로 타이거즈의 'V12'를 위해 도전하고 있다.

앞서 한국시리즈 만루홈런을 기록한 4명의 선수는 그해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김유동은 1982년 10월 12일 삼성과의 6차전 9회 초 승부에 썩기를 박는 만루포를 장식하면서 8-3 승리를 이끌었고, 두산 전신 OB는 한국시리즈 우승을 확정했다.

2001년 10월 25일에는 김동주가 삼성과의 4차전에서 3회 만루포를 기록했고, 이 경기는 18-11 두산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그리고 두산은 6차전 승부 끝에 2001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이 됐다.

최형우는 삼성 유니폼을 입고 있던 2012년 10월 25일, SK(현 SSG)의 2차전 선발 마리오를 상대

로 만루 상황에서 담장을 넘겼다. 이 경기는 삼성의 8-3 승리로 끝났고, 5차전 2-1 승리로 삼성이 2012년 가을 챔피언에 등극했다.

2017시즌에는 KBO 역대 만루 홈런 통산 1위에 빛나는 이범호 현 KIA 감독이 '가을 야구' 그랜드슬램을 작성했다.

이범호 감독은 10월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5차전 승부에서 니퍼트를 상대로 앞선 시리즈 부진을 털어내는 만루포를 날렸다. KIA는 이 경기를 7-6 승리로 장식하고 'V11'에 마침표를 찍었다. 공교롭게도 김유동의 홈런을 제외하고 김태군의 홈런 포함 4개의 만루포는 모두 3회에 나왔다.

김태군의 만루포를 앞세운 KIA는 이 경기를 9-2로 끝내면서 '한국시리즈 만루홈런=승리'라는 공식이 또 성립했다. 중요했던 4차전 승부에서 승리를 거둔 KIA가 '한국시리즈 만루홈런=우승'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신문으로 만들어봐

광주일보가 신문을 사랑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갖도록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역사신문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제5회 신문사랑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은 학생과 교사 등에게 효과적인 신문활용 교육방법을 알리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창적인 기획을 가진 작품으로, 학생과 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독창적인 기획이 담긴 신문
- 4·16 세월호 참사,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적 인물 등
- 참가자격 : 광주·전남 지역 초·중학교 팀(학생 2명 이상+지도교사 1명 이상)
- 출품작 접수 : 11월 8일(금요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광주일보 9층 편집국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담당자 앞 (전화문의: 062-220-0680)
- 심사 및 수상작 선정 :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4점)-11월 11일(지면발표)

光 州 日 報 社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전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785-0073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09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 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주식회사 해수에너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48
청산인 채운석

해산 및 채권제출공고(2차)

당 회사는 2024년 09월 12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바, 당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은 본 공고 일로부터 2개월 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채권신고가 없는 경우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주식회사 해수에너지
전남 영암군 영암읍 중앙로 48
대표청산인 임정태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2고합126 공직선거법위반등
피고인 : 우승희, 박상률, 김인배, 박박래
위 피고인들은 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10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이지혜

판결공시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고정140 보령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 박광권
위 피고인은 보령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범죄사실의 증명에 부족함이 없는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4년 10월 21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박건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신안시도1호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광명리 163-2번지외89번지 (총 9필지) (행정리 1620-2, 1621, 1621-2, 1622, 1622-2, 1622-5 / 사동리 1976, 1976-2, 1977)
• 발전소면적: 346,490㎡
• 공고기간: 2024.10.23~2024.10.31. (9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48,095.5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01.01.-2048.12.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파울신안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10.23.-2024.10.31. (9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3440-7841 팩스: 02-6281-9001
E-Mail: 218001@dasc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알매읍 원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신안시도3호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광명리 167-2번지외11필지 (총 12필지) (행정리 1614-2, 1614-3, 1614-4, 1616, 1616-2, 1616-4, 1616-6, 1616-8, 1616-10, 1617, 1617-2 / 내항리 1740-25)
• 발전소면적: 145,250㎡
• 공고기간: 2024.10.23.-2024.10.31. (9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28,800[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01.01.-2048.12.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파울신안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10.23.-2024.10.31. (9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3440-7841 팩스: 02-6281-9001
E-Mail: 218001@dasc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알매읍 원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공고

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

1. 발전사업개요
• 발전소명: 신안시도3호 태양광발전소 사업
• 발전소위치: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광명리 167-2번지외11필지 (총 12필지) (행정리 1614-2, 1614-3, 1614-4, 1616, 1616-2, 1616-4, 1616-6, 1616-8, 1616-10, 1617, 1617-2 / 내항리 1740-25)
• 발전소면적: 145,250㎡
• 공고기간: 2024.10.23.-2024.10.31. (9일)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
• 발전용량: 21,262.5[MW]
• 사업개시예정일: 2027년 01월 이후
• 사업운영기간: 2028.01.01.-2048.12.31. (20년간)

3.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 (유)파울신안태양광 대표이사 김도연

4. 주민의견 제출
• 기간: 2024.10.23.-2024.10.31. (9일)
• 의견제출방법
전화: 02-3440-7841 팩스: 02-6281-9001
E-Mail: 218001@dasco.kr

5. 열람장소
• 장소: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미래에너지팀
• 주소: 전남 신안군 알매읍 원사로 1004
• 전화: 061-240-8334

※ 해당 사업관련 자료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료열람을 하실 수 있으시며 이용이 불편하신 경우 저희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시 수송동 7층 매매

메디칼 빌딩, 바닥 628㎡ 대청건물
대로, 롯데마트 앞

약국 하루 차량간 400원, 6개월 후 10년 임대료, 우등인구 많은 빌딩 / 투자가치 최고
약국, 내과(의사 3명), 소아과, 통증과 외 기타
월 3천 4백 (수익률 8.13%)

매매가 78억 원 포함
42억5천 / 보영 4천 포함
인수가 26억 1천

010-3646-8700